

지역 매 아 리

정읍시 드림스타트 3주 동안 여름방학특강

정읍시 드림스타트가 여름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지난 30일 시작된 특강은 오는 8월 17일까지 운영된다. 특강에서는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아동 15여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한다.

드림스타트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1:1 집중 기초학습 지도와 레크리에이션, 원예공예, 난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의 정서와 인지 발달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욱 밝은 미래와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 수상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탐리더스 포럼에서 주최하고 2018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 정계인 부문에 수상했다.

최낙삼 의장은 세계속의 무한경쟁 시대에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 솔선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뛰어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최낙삼 의장은 올해 일간 한국인 주관 2018 혁신 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주관 2018 혁신 한국인&파워코리아 대상, 스포츠동아 라이프기획특집 주관 2018 고객만족 & 대한민국 대표 BRAND 대상, 대한뉴스 주관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미래를 여는 산업 대상, YNEWS 주관 2018 대한민국 의정대상, 연합매일신문 주관 2018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폭염 장기화 관련 부서·읍면동 긴급대책회의

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무더위 쉼터 점검 등 논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지난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폭염 특보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관련 부서와 읍면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피해 예방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주시상지청의 정읍지역 폭염 전망을 청취하고 각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폭염 관련 종합대책 추진 상황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노인시설 관리 ▲가뭄 대책 ▲가축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대책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부시장은 "기습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 될 전망으로, 이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각 부서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관련해 시는 앞으로도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해 나갈



다는 방침이다. 도로 물 뿌리기 연장과 확대, 열을 비추 기간 연장,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폭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방송과 재난도우미의 전화 연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 당부

7~10월 집중 발생... 야외활동 더욱 주의 기울여야

고창군보건소가 전국 곳곳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열성질환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2명의 환자가 감염돼 5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111명이 감염돼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창군에서는 지난 28일 70대 남성A씨가 SFTS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다. SFTS 감염자는 해마다 4~11월 발생하며 특히 7~10월 집중되므로 이 시기 야외활동을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외활동을 다녀온 후 2주 이내 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에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야생가축에 의한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독서 동아리 캠프 운영

'한권의 책 독서운동' 일한

정읍 기적의도서관이 최근 지역 내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 연합캠프를 운영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캠프는 '2018 한권의 책 독서운동' 연계 프로그램으로, 정읍교육청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책모임(일명 책샘프로젝트 : 정읍교육지원청 사업), 지역 내 9개 고등학교, 정읍시(기적의도서관) 연합으로 마련됐다. 캠프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독서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80여명이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덴마크 교육방식과 그

교육방식을 우리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선들에 대한 밥샘 토론과 게임, 길게그림 그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 조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토론한 주제에 대한 과제 작성과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과제발표 시간은 밤새워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전언이다. 관계자들은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 참여 학생들의 우정 증진과 독서 모임 공유 뿐 아니라 지역 내 교육기관들이 힘을 모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유익하고 즐거웠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



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을 당초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했고, 참여 학교도 4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크게 늘어났다.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 내 13개 고등학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연합캠프가 '한권의 책' 관련 주요 부대 행사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 손기홍 이장이 누에와 오디 뽕을 활용가치를 제고, 농촌 융복합산업화 선도 기여 공로로 최근 시사투데이가 주최 및 주관한 2018 대한민국 신지식 농업경영인 대상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신지식 농업경영인 대상 수상

부안 유유마을 손기홍 이장, 누에 오디 뽕 활용가치 제고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 손기홍 이장이 누에와 오디 뽕을 활용가치를 제고, 농촌 융복합산업화 선도 기여 공로로 최근 시사투데이가 주최 및 주관한 2018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손기홍 이장은 부안 누에 오디 뽕 활용가치 제고와 향토산업마을 품모형 구축에 헌신하고 주민소득 향상 및 도농교류 증진을 이끌어 양잠 영농기술 선진화와 농촌 융복합산업화 선도에 기여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은 150년 전통의 누에산업 메카로써 현재 55가구 주민 대다수가 누에를 키우며 오디, 꾸찌뽕, 뽕잎 생산을 통해 해마다 누에 치기 규

모가 5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누에 생산지이다.

손기홍 이장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누에환, 뽕잎 차, 오디 짬 등 친 환경 양잠 영농 생산, 가공, 판매를 통해 부안뽕뽕을 명품 브랜드화 하는데 큰 기여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손기홍이장은 양잠 거점마을을 위한 마을홍보관 건립, 지역 경관개선사업,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헌신적 노력을 해왔다.

손기홍 이장은 "지난해 우리 마을의 양잠농업이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지정받아 자부심이 매우 크다"며 "국가농업유산을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도 되고 후대까지 계승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읍면 초도방문 전환

한해 우심 지역 현장방문 전환 폭염·가뭄 극복 발벗고 나서

부안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오는 8월 6일까지 예정돼 있는 읍면 초도방문을 한해 우심 지역 현장방문으로 전환,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가뭄 극복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권군수는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역 내 무더위 쉼터 20여 개소를 방문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부안은 지난날 태풍 '쁘리빠룬' 이후 근 한 달째 비소식이 없어 농작물의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농업용수 확보, 무더위 쉼터 점검 등 한해와 폭염에 선제로 대응해 군민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won' (진안고원) honey wine. The image features a bottle of honey wine in the foreground, with a background showing a traditional Korean dish (possibly a stew) and a bowl of rice.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South Korea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won),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Evaluation Award Gold Medal), and '홍삼주' (Ginseng Wine) in large stylized characters.